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변종현*

I. 머리말

II. <도산잡영>과 <도산십이곡>의 관련성

III.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3-1. <도산십이곡>의 구조

3-2. <도산십이곡>의 의미

3-2-1. 言志에 표현된 主理論的 세계관

3-2-2. 言學에 표현된 修養論的 세계관

IV. 맺음말

1. 머리말

퇴계(1501~1570)의 <도산십이곡>은 퇴계가 성리학적 사고체계를 완성한 시기인 60세 이후에 시조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작품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도산십이곡>에 구현된 퇴계의 사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즉 연구자들은 <도산십이곡> 발문에 나타난 창작 동기에 주목하여 <도산십이곡>은 한림별곡류의 관능적 향락과 이별육가의 玩世不恭을 극복한 작품이며, 溫柔敦厚의 정서가 이 작품의 품격이라고 하였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도산십이곡>이 天人合一과 敬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고, 작품의 내적 질서가 퇴계의 理氣論的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퇴계는 스스로 『心經』을 통하여 감발흥기한 체험을 바탕으로, 『심경』 및 마음공부를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실천하면서 감발용통할 수 있도록 <도산십이곡>을 지었다고 논의되기도 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이별<육가>를 약방한 도산육곡이 12곡으로 된 것은 주자의 <무이정사잡영>과 <운곡잡시>가 12수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상의 기존 논의들은 대체로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작가의 성정론이나 수양론 내지는 이기론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산십이곡>의 문학성이나 미학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즉, <도산십이곡>은 퇴계 자신의 생생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내면의 세계를 읊은 작품으로, ‘言志’를 통해 도산의 자연과 교감하면서 느끼는 개인적 감회를 노래하였고, “言學”을 통해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려는 자신의 뜻을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형식으로 노래하였고, “言志”와 “言學”은 다같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진 하나의 구조물을 연상할만큼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퇴계가 자연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은 자연을 통해 세계의 근원적 질서를 통찰할 수 있기 때문이

었고, 그 근원적 질서는 인간사회의 질서를 통찰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도산십이곡>은 그 근원의 아름다움을 체득하는 “흥”과 “낙”을 언어로 드러낸 시라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논의를 정리해 보면 <도산십이곡>의 내적 질서를 퇴계의 이기론적 사상에 근거하여 분석하기도 하고, 온유돈후한 품격의 시조로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산십이곡>의 문학과 미학적 특징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논의된 선행 연구 업적들을 바탕으로, <도산십이곡>에 구현된 의미와 작자의 세계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퇴계가 61세 나이에 <도산잡영 병기>를 쓴 것을 보면 <도산잡영>과 <도산십이곡>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도산잡영>을 짓고 난 뒤에 歌唱(가창)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말로 엮은 <도산십이곡>을 짓게 되었다.

<도산십이곡>은 전육곡·후육곡 각 6수씩 전 12수로 된 연시조이다. <도산십이곡>에 구현된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도산십이곡>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도산십이곡>의 의미는 퇴계의 성리학적 이론 체계와 관련이 깊은데, 퇴계의 主理論과 修養論이 어떻게 작품 속에 내적 질서를 갖추고 구현되어 있는가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도산잡영>과 <도산십이곡>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도산잡영>과 <도산십이곡>의 관련성

<도산십이곡>은 퇴계의 도산서당 시절 지은 작품이다. 도산서당에 관련된 퇴계의 작품은 한시 48수로 엮어진 <陶山雜詠>, 한문으로 된 <陶山記>, 그리고 국문시조로 된 <도산십이곡>이 있다. 퇴계는 61세 되던 해에 쓴 <도산잡영 병기>에서 山林을 즐기는 두 부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하나는 玄虛를 사모하며 高尚을 일삼기 위하여 즐기는 자요, 다른 하나는 道義를 기뻐하며 心性을 기르기 위하여 즐기는 자이다. 앞에서 말한 자들은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윤리를 어지럽히고, 심하면 새와 짐승들과 함께 무리 지으며 살아도 잘못된 줄을 모르고 산다고 하였다. 나중에 말한 자들은 좋아하는 것이 찌꺼기 같은 것 뿐인데, 전할 수 없는 묘한 경지는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터득하지 못하게 되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비록 그러하나 차라리 이러한 경지를 추구하여 스스로 힘쓰게 되면 저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게 된다.고 하였다. 퇴계는 이처럼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노장적인 玄虛와 高尚을 버리고 유가적인 도의를 기뻐하며 心性을 기르는 일에 힘써야 함을 역설하였다.

도산서당은 노숙한 경지에 들어간 한 철인의 정신 생활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그곳의 자기 생활 환경과 정신 세계의 情調와 意境을 이처럼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이용해서 그려냈을 것이다. 그런데, <도산잡영>과 <도산기>만으로도 도산에서의 생활하는 모습을 다 밝혀 놓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퇴계는 무엇 때문에 다시 <도산십이곡>을 짓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도산십이곡> 발문에 나와 있다. 즉, 퇴계 자신이 산수간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가운데 마음의 느낌을 매양 한시로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시는 詠할 수는 있어도 歌할 수는 없고, 만약 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말로 엮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歌唱의 필요성 때문에 퇴계는 우리말로 된 <도산십이곡>

을 짓게 된 것이다.

<도산십이곡>은 주리론, 수양론이 입장이 활발히 논의되고 완성되던 시기에 창작되었다. <도산십이곡발>을 지은 때를 퇴계는 그 발문 끝에 1565년(65세)으로 적고 있는데 일부 논자는 <도산십이곡> 작품 자체는 이보다 앞선 1560년에서 1565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도산십이곡>을 창작한 시기를 바로 전후하여 퇴계는 이기론과 수양론의 입장을 완성했다. 퇴계 연보에 따르면 <도산십이곡발>을 짓기 전인 그의 나이 60세 되던 해(1560년)에는 기고봉과 편지 왕래를 통하여 사단칠정론을 완성하였고, 61세에는 <도산기>를 지었다. 그 이후 1566년에는 <心經後論>을 짓고, 1568년에는 <聖學十圖>를 만들어 主理論的 理氣論에 기초한 主敬的 修養論의 입장을 체계화했다. <도산십이곡>과 발문을 창작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주리적 이기론이나 주경적 수양론의 입장이 확고히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도산십이곡>이 그의 사상적 입장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퇴계는 61세 나이에 <도산잡영 병기>를 쓴 것을 보면 <도산잡영>과 <도산십이곡>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도산잡영>을 짓고 난 뒤에 歌唱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말로 엮은 <도산십이곡>을 짓게 되었다. 그렇다면 <도산잡영>과 <도산십이곡>은 한시와 시조라는 양식의 차이만 있을 뿐 山水를 즐기면서 道義를 기뻐하며 心性을 기르기 위해서 창작되었다는 공통적인 기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안하여 <도산잡영>과 <도산십이곡>의 상관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陶山雜詠, 天淵臺(천연대)>

縱翼揚鱗孰使然	솔개 날고 물고기 뛰는 것 누가 시켰던가
流行活潑妙天淵	천지유행 활발할 하늘과 연못에 오묘하네.
江臺盡日開心眼	강가 대에 종일토록 마음 눈 열어 놓고
三復明誠一巨編	세 번 거듭 명성 큰 책을 외우려 하네.

이 시는 天淵臺 주변에서 바라본 경물을 읊은 것이다. 퇴계는 하늘에는 솔개가 날고 연못에는 물고기가 뛰놀고 있는 천연대 주변의 경물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이치가 천지에 유행하여 活潑潑함을 깨닫고, 강가 대에서 종일토록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놓고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도 자연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성현의 말을 다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구의 明誠 큰 책은 中庸의 <費隱章>으로, 이 속에 있는 詩云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及其至也, 察乎天地를 세 번이나 거듭 외워본다는 것이다. 이 시에 표현된 내용은 <도산십이곡> 言志 6과 관련이 깊다.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호라
 四時 佳興이 사롭과 흥가지라
 호를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야 어닌 그지 이슬고

언지 6에서 퇴계는 질서정연 하게 반복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면서 느끼는 감동을 노래하였다. 초장에서는 봄과 가을의 아름다운

풍광을 드러내면서 사계절의 질서가 정연함을 노래하였고, 종장에서는 中庸 <費隱章>에 나타나있는 “魚躍鳶飛”의 묘리를 노래하였다.

<陶山雜詠, 盤陀石(반타석)>

黃濁滔滔便隱形 누런 물결 넘실댈 뻬 문득 모습 숨기더니
安流帖帖始分明 편안하게 물 흐르니 비로소 분명하네.
可憐如許奔衝裏 어여빠라, 저렇게 달리고 부딪쳐도
千古盤陀不轉傾 천고 세월 반타석은 기울지 않는구나

이 시는 반타석의 의연하고 변하지 않는 우뚝한 기상을 노래하고 있다. 반타석은 누런 물결이 넘실댈 때는 모습을 숨기더니, 편안하게 물이 흘러갈 때는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천고의 세월을 달리고 부딪치는 속에서도 의연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어서 반타석의 자태가 더할 수 없이 어여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타석의 모습을 통해서 퇴계는 자연의 이치가 변하지 않는 원리를 노래하였다. 이러한 意象은 <도산십이곡> 言學 5에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靑山은 옛데 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난 옛데 야 晝夜에 굿지 아니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 호리라

퇴계는 청산과 유수처럼 우리도 학문과 수양의 길을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거듭하고 있다. 이 장에서 퇴계는 현상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푸른 산은 만고의 세월이 흘러도 늘 푸르며, 흐르는 물은 밤낮을 그치지 아니하고 흘러간다고 하여 理의 본질은 변하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고, 우리도 자연의 理法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여 만고에 늘 푸른 모습으로 살아가야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산잡영>과 <도산십이곡>은 한결같이 태극 염계의 묘리를 터득하기 위해 고심했던 도학자 퇴계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로, 서로 관련이 깊은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퇴계는 도산에서의 흥을 <도산잡영>이라는 한시로 먼저 창작하고, 한시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우리말 노래로 표현한 것이 <도산십이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퇴계는 <도산잡영>과 <도산십이곡>을 통하여 서책에서 얻은 성현의 도와 자연에서 체득되는 이치를 한시와 시조에 담아 노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III.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퇴계는 <도산십이곡>의 창작동기를 발문에서 구체화하였다. 그럼 우선 <도산십이곡발>을 통해 <도산십이곡>의 창작동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산십이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바다. 노인이 이 노래를 지은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의 가곡은 대개 음란한 소리가 많아서 말할 바가 못된다. 翰林別曲과 같은 것들도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矜豪放蕩(궁호방탕)하고 褻慢戲狎(설만희압)하여 더욱 君子가 숭상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래에 李麓(이별)의 六歌가 세상에 널리 전하니 오히려 그것이 이것보다 낫기는 하나 또한 玩世不恭의 뜻만 있고, 溫柔敦厚(온유돈후)한 내용이 적음을 애석하게 여겼다. 노인은 평소에 音律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의 음악 듣기

를 싫어하였다. 한가히 살면서 병을 수양하는 여가에 무릇 情性에 감통이 있는 것을 매양 시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可詠) 노래할 수는 없다.(不可歌) 만약 노래하려 하면 반드시 俚俗(이속)의 말로 엮어야 하니, 대개 나라 풍속의 音節이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이별의 노래를 대략 모방하여 <陶山六曲>을 지은 것이 둘인데, 그 하나는 言志이고, 둘은 言學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혀 노래하게 하고, 책상에 기대어 듣고,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기도 하니, 거의 더러움과 인색함을 씻어버리고, 감발하며 화창하여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하게 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취를 돌아보건대 자못 어긋남이 있는지라 이 같은 한가한 일로 혹시 말썽을 일으키지는 않을는지 알 수 없고 또한 그것이 노래 곡조에 들어가며 음절에 화합하지 아니할런지를 스스로 알 수 없다. 우선 한 벌을 써서 상자에 넣어 두고, 때때로 꺼내어 보고 스스로 살피고 또 다른 날 보는 사람이 있어 버리고 취함을 기다릴 따름이라

가정 44년(1565) 을축년 음력 3월 16일에 도산노인이 씀

위의 발문을 통해서 퇴계의 창작동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라의 가곡은 음란한 소리가 많아서 말할 바가 못된다. <한림별곡>은 矜豪放蕩(궁호방탕)하고 褻慢戲狎(설만희압)하여 군자가 숭상할 바가 못되고, <이별육가>는 玩世不恭(완세불공)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온유돈후)한 내용이 적어서 애석하다.
2.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可詠) 노래할 수는 없다.(不可歌) 만약 노래하려 하면 반드시 俚俗의 말로 엮어야 하니, 대개 나라 풍속의 音節이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별의 육가를 약방하여 <도산육곡> 둘을 지어, 어린아이들이 즐겨 익혀 노래하면서 더러움과 인색함을 씻어버리게 되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되게 하려 함이다.

먼저 퇴계는 우리 나라 가곡은 음란하여 말할 바가 못된다고 하면서 <한림별곡>과 <이별육가>를 예로 들었다. <한림별곡>은 궁호방탕하고 설만희압하여 군자가 숭상할 바가 못된다고 하였다. <한림별곡>은 조정의 공식 연회나 과거에 합격한 자들의 신참례, 그리고 중국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도 자주 공연이 되었다. 퇴계가 말하는 군자는 퇴계가 <도산잡영 병기>에서 언급한 산림을 즐기는 두 부류 가운데, 도의를 기뻐하며 心性을 기르기 위하여 즐기는 자들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그리고 <이별육가>는 완세불공의 뜻이 있고, 온유돈후한 내용이 적음을 아쉬워하였다. <이별육가>의 내용은 <도산잡영 병기>에서 언급한 玄虛를 사모하며 高尚을 일삼기 위하여 즐기는 자들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윤리를 어지럽히고, 심하면 새와 짐승들과 함께 무리지으며 살아도 잘못인 줄을 모르고 산다고 하였다. 퇴계는 <도산잡영 병기>에서 山林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道義를 기뻐하며 心性을 기르는 일에 힘써야 함을 역설하였는데, 결국 퇴계는 <한림별곡>과 <이별육가>의 연행방식과 내용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의를 기뻐하며 心性을 기를 수 있는 시조를 창작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즉 궁호방탕, 설만희압, 완세불공의 노래를 배격하고, 性情 순화에 보탬이 되는 온유돈후한 시조의 풍격을 짓고 싶

은 동기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禮記』 經解篇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 교화를 알 수 있다. 그 사람됨이 온유 돈후한 것은 시의 교화이다.㉡라 하였다. 여기서 공자는 사람의 성품을 온유 돈후하게 하는 데는 시의 교화가 절대적임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퇴계는 노래부를 수 있는 시조의 歌唱性을 중시하였다. 지금의 시는 한시를 염두에 둔 말인데, 한시는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부를 수 없으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俚俗(이속)의 말로 엮은 시조 양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형식적으로는 이별의 육가를 약방하여 <도산육곡> 둘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퇴계는 내용상으로는 이별의 육가가 玩世不恭의 뜻이 있어서 배척하였지만 六歌系 형식은 약방하여 六曲 둘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퇴계는 시조 창작 동기를 어린아이들의 心性을 닦는 일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린아이들이 즐겨 익혀 노래하면서 더러움과 인색함을 씻어버리게 되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퇴계는 발문에서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형식적인 면에서 이별의 육가계 형식을 따라 짓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즉 고려 고종 때 제작된 <한림별곡>은 고려와 조선을 걸쳐 오랫동안 궁중의 연회석상에서 자주 공연이 되었고,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진출한 사대부들의 신분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노래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퇴계는 <한림별곡>의 공호방탕함과 설만희압함을 문제 삼아 이러한 노래는 인격 수양에 힘써야 할 군자들이 숭상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별육가>도 완세불공의 뜻이 있고 온유돈후한 맛이 없다고 하여 내용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육가의 형식을 대략 모방하여 <도산십이곡>을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퇴계의 이러한 언급에 주목하여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도산십이곡>의 구조

<도산십이곡>은, 前六曲은 言志, 後六曲은 言學 등 12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형식은 퇴계가 <도산십이곡> 발문에서 밝혔듯이 <이별육가>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퇴계는 이러한 형식으로 言志에서는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노래하였고, 言學에서는 학문과 수양의 실천 방법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도산십이곡발>에서 <한림별곡>을 배척한 것은 문인들 사이에 가창이 유흥적으로 흐르는 풍조를 경계한 말이겠지만, 특히 이별의 <육가>에 대한 언급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퇴계는 이별의 <육가>가 세상에 널리 유행하고 있는데, 玩世不恭한 뜻이 있고, 溫柔敦厚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이 <육가>를 대략 모방해서 <도산십이곡>을 지었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내용면에서 비판하면서도 형식면에서 자기 작품의 모델로 삼았던 셈이다.

퇴계는 <도산십이곡>을 창작함에 있어서 이별육가의 ‘玩世不恭之意’를 제외시키고 주자의 <武夷雜詠> 등의 山水詩的 韻意를 가미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즉, <도산십이곡>이 12수의 시인데, <武夷精舍雜詠(무이정사잡영)>이 12수이며 <雲谷雜詩> 역시 12수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는 것이다. 이별육가를 의방한 <陶山六曲>이 <십이곡>으로 된 것은 아마도 주자의 시들이 12수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고, <도산십이곡>에 보다 많

은 영향을 준 것은 <武夷精舍雜詠>이라고 보았다. 주자의 시상이 그의 뜻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和韻을 했고, 화운을 하는 과정에, 주자의 시상이 퇴계의 의식 속에 녹아 있다가 도산십이곡에 은연중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구나 陶山(도산)에의 은거는 주자의 雲谷이나 武夷九曲에의 생활과 비슷한데가 너무 많았음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도산십이곡>의 형식은 <이별육가>의 육가계 형식을 대략 모방하였다고 하였다는 퇴계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六歌는 송의 文天祥(1236~1282)의 한시인 <六歌>로부터 비롯된다. 칠언고시로 된 문천상의 <六歌>는 원의 침입으로 체포당했으나 끝까지 굴하지 않고 집안과 나라의 망함을 보고 지은 노래이다. 김시습은 이를 계승하여 <東峰六歌>를 지었다. 이별의 <藏六堂六歌>도 이러한 六歌의 정신을 계승하여 풍자적 은둔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 <육가>가 <십이곡>으로 배수가 늘어났고, ‘歌’가 ‘曲’으로 그 명칭이 변했는데, 퇴계는 이별 <육가>를 형식적으로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도산십이곡>은 여섯 수로 된 “言志”와 “言學”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계는 <도산십이곡> 발문에서 이별의 <육가>를 대략 모방하여 <도산육곡>을 지은 것이 둘인데, 그 하나가 “言志”요, 둘이 “言學”이라고 말하였다. 퇴계는 작품의 이름을 <도산육곡>이라 하여 육가계 노래임을 뚜렷하게 밝혀 놓았다. 따라서 두 육곡이 독립된 노래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의미가 통일성을 지닌 노래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연구에서는 六曲으로서의 독립성과 十二曲으로서의 통일성 문제는 물론 구조의 문제에까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작품에 담긴 퇴계의 사상을 해명하는데 주로 관심을 드러내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성기옥은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즉 “言志”와 “言學”은 다같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진 하나의 구조물을 연상할 만큼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言志”는 자연-사회라는 기본틀을 가지고 병치의 원리, 대조의 원리, 점층의 원리라는 세 가지 구성 원리에 의해 짜여진 구조이며, “言學”은 배움의 당위성과 영속성이라는 두 덕목을 가지고 점층의 원리, 대조의 원리라는 두 가지 구성 원리에 의해 짜여진 구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言志”와 “言學”의 통일성은 마지막 연이 공통적으로 <中庸> 費隱장의 君子之道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은 “자연의 도”와 “인간의 도”라는 두 측면을 노래한다는 면에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도산십이곡>은 발문에 나타나있는 창작 동기에 드러나 있듯이, 이별의 <육가>를 대략 모방하여 지은 육가계 노래임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육곡이 “言志”와 “言學”으로 각각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中庸> 費隱장의 君子之道에 연결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3-2. <도산십이곡>의 의미

퇴계는 자신의 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 시가 枯淡하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아니하나, 시에 힘을 씀이 자못 깊다. 그 때문에 처음에 볼 때에는 비록 冷淡한 듯하나 오래 보게 되면 의미가 없지는 아니할 것이다.

위에서 퇴계는 자신의 시의 풍격을 “枯淡”하다고 하였다. 蘇軾은 枯淡을

, “밝은 마른 것 같으나 속은 기름지고, 담담한 듯하나 실은 아름다운 것이다.”라 하였는데, “枯淡”한 풍격의 시는 결국 온유둔후한 시를 지향한 퇴계의 시정신이 반영된 풍격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평소에 枯淡한 풍격의 시를 이상으로 생각하였던 퇴계의 시정신이 <도산십이곡>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퇴계는 노래부를 수 있는 시조의 歌唱性을 중시하였다. 지금의 시는 한시를 염두에 둔 말인데, 한시는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부를 수 없으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俚俗의 말로 엮은 시조 양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형식적으로는 이별의 육가를 약방하여 <도산육곡> 둘을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퇴계는 시조 창작 동기를 어린아이들의 心性을 닦는 일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60세가 넘어 이기철학을 완성하고 심오한 이기철학의 원리를 육가의 형식을 빌어 俚俗의 음절로 노래하여, 어린 아이들이 즐겨 익혀 노래하면서 마음 속의 더러움과 인색함을 씻어버리게 되어, 노래하는 아이들도 유익하고 주변에서 듣는 청자들(부모 형제들)도 유익하여 서로 감발응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먼저 전육곡인 “言志”에 표현된 主理論의 세계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2-1. 言志에 표현된 主理論의 세계관

조선조의 문단에서는 문장은 도를 싣는 것이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載道的(재도적) 문학관은 송대 周濂溪가 文以載道論을 주장한 이래로, 중국과 조선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주렴계는 글은 道를 싣는 것이요, 수레가 꾸며져도 사람이 쓰지 않는다면 한갓 꾸밈에 불과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文辭는 藝요, 도덕은 實이니, 實과 藝(예)를 돈독히 하여 써야 아름답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문장은 걸꾸밈이요, 도덕은 열매라 하면서 걸꾸밈과 열매가 조화를 이루어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작품이 아름다움을 획득하여야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는 작품이 후세에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퇴계도 주렴계의 이러한 載道的 문학관을 이어받아 문학에 있어서 道文一致를 지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 글에서 이러한 문학관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오호라. 시를 지으면서 德行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浮薄)한 폐단이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고금의 통하는 근심거리이며,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여 욕하는 것입니다. 시경시의 삼백편에서 성인의 성정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진실로 먼저 그 큰 것을 세울 수 있게 되면 그 꽃이 피어나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모두 그 남은 일일 뿐입니다. 그런즉 세상의 시를 배우는 자들이 어찌 忠愛로써 근본을 삼지 않을 수 있으리오.

퇴계는 시를 지으면서 덕행에 바탕을 두지 아니하면 부박한 폐단이 있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고금을 통하여 근심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일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퇴계의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한림별곡>류의 향락적 풍류를 염려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퇴계는 시의 본질이 인간의 순수한 성정을 드러내는데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러한 시의 전범으로 시경시 삼백편을 들고 있는데, 시경시를 읽으면서 성인들의 性情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진실로 시를 쓸 때에 먼저 德行에 바탕을 둔 큰 것을 세우게 되면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은 남은 일일 뿐이라고 하였다. 특히

시를 배우는 자들이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근본이 忠과 愛라 하였는데, 마음을 다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德行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에 대한 견해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보편적인 견해라 할 수 있는데, 이기철학을 집대성한 퇴계에 이르러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어 퇴계는 도연명의 인품과 시를 평가하면서 도연명의 자질이 온화하고 넓으며 학문이 깊고 넓고 절개가 보통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에, 그가 지은 시도 “沖澹閑雅”하며, 구법과 격률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같지마는 말이 자연스럽고, 세속을 벗어난 듯하다고 하였다. 도연명은 德行을 잘 갖추고 살았기에, 그가 지은 시도 후대 선비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풍격인 “沖澹閑雅”함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연명의 “沖澹閑雅”한 풍격은 퇴계 자신이 추구하던 “枯淡”한 풍격과 잇닿아 있는 풍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돌 었더 흐며 더런 돌 었다 흐료

草野 愚生이 이러타 었다 흐료

흐들며 泉石膏肓을 고탈며 으슴 흐료

퇴계는 言志 첫 수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시적 자아의 뜻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초장에서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이런), 벼슬에 나아가 경국제세의 이상을 펴는 것도(더런) 모두 다 옳은 일임을 노래하였다. 중장에서는 서정적 자아를 초야 우생으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서는 자신에 대한 겸칭으로 쓰이면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즉, 이제 초야에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은 이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천석고황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였다. 첫 수에서부터 퇴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초야에서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자세를 드러내었다. 평생을 벼슬보다는 심성 수양에 힘을 쓰면서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애를 쓴 퇴계는 앞으로는 도산서원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담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煙霞로 지불 삼고 風月로 버들 사마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 가뇌

이 됨에 브라노 이른 허므리나 업고자

언지 2에서는 퇴계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노래하였다.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바람과 달과 벗을 하면서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간다고 하였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이 살고 싶다는 것이다. 종장에 나오는 “허물이나 없고자”는 『맹자』의 “君子三樂”에 나오는 두 번째 즐거움과 연관되어 있다. 즉 『맹자』는, ①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가 아무런 탈이 없음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英才를 얻어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라 하였다. 이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하늘에 달려 있고, 하나는 남에게 달려 있고, 스스로 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 뿐이니, 배우는 자가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허물없이

살고자 하는데 가장 필요한 일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고(克己), 爲己之學을 하여야 인격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된다. 퇴계는 언지 1에서는 초야우생이 천석고황을 고쳐서 무엇하겠느냐고 말하였고, 언지 2에서는 태평성대에 허물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드러내었다.

淳風이 죽다하니 眞實로 거죽마리
 人性이 어디다 하니 眞實로 울흐 마리
 天下에 許多 英才를 소겨 말슴 흥가

언지 3에서는 순자의 性惡說과 맹자의 性善說을 거론하면서,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고 하나 거짓말이고, 사람의 성품이 어질다 하니 옳은 말이라 하였다. 천하에는 수많은 영재들이 있는데 이들을 숙여서 말을 했겠는가라고 맹자의 性善說을 적극 긍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종장에 나오는 “許多 英才”는 『맹자』의 三樂을 연상케 하여 영재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퇴계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온 세상의 밝고 지혜로운 인재를 모두 얻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친다면, 이 도의 전함을 얻은 자가 많아져서 천하와 후세가 장차 그 혜택을 입지 않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경국체제의 이상을 실현할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물러남의 길을 걸으면서 퇴계가 하고자 한 최선의 兼善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언지 3에서 퇴계는 자연 속으로 물러나있으면서도 허다한 영재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사회에다가 천명하고 있다.

幽蘭이 在谷하니 自然이 듣디 도해
 白雲이 在山하니 自然이 보디 도해
 이 등에 彼美一人를 더욱 닛디 묻 애

언지 4에서는 그윽한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이 듣기가 좋고, 흰 구름이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가 좋다고 하였다. 골짜기 어디인가에 난이 자라고 있고, 산 위에는 흰 구름이 떠 다니고 있다. 난은 꽃을 피우면 향기가 골짜기에 은은히 퍼질 것이고, 흰 구름이 산 위에 떠 있으니 여유롭고 한가로운 정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가운데 “彼美一人”을 더욱 잊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美人”은 왕으로, 이 장은 도산의 자연이 주는 고즈넉한 정취를 즐기면서도 왕을 잊지 못하는 사대부 지식인으로서의 겸선의식으로 논의되기도 하고,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발견과 그 근원처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보기도 한다. <도산십이곡>이 도학적 함의를 가진 시조이기는 하지만 “彼美一人”은 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퇴계는 아름다운 도산 주변의 경관 속에 살면서도 “彼美一人”을 더욱 잊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여, 戀君의 정과 忠君의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山前에 有臺하고 臺下에 有水 | 로다
 세 만흐 곱며기논 오명 가명 흥거든
 엇다다 皎皎白駒는 머리 모습 흥논고

언지 5에서 퇴계는 선비의 出處觀을 드러내고 있다. 산 앞에는 누대가 있고, 누대 아래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 때를 지어 나는 갈매기는 오락가락하는데, 어찌하여 깨끗하고 순백한 망아지는 멀리 마음을 두는가라고 힐난

하고 있다. 여기서 “皎皎白駒”는 <詩經, 小雅, 白駒>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희고 순백한 망아지가 내 발의 새싹을 뜯으면 발을 묶고 고삐를 조여 이 아침에 잡아두리. 내 마음의 귀한 손님 여기에서 놀아주오.□라 하였는데, 주자는 현자가 떠나는 것을 만류하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겨 지은 시라고 하였다. 여기서 산과 물을 배경으로 갈매기떼는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白鷗盟을 하면서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흰 망아지는 멀리 마음을 두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종장에 나오는 “皎皎白駒”는 현자의 뜻으로도 쓰이고 은자의 뜻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시적 자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시적 자아가 멀리 마음을 두게 되는 상황을 탓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산과 누대, 물, 갈매기들과 어울려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현자가 타고 있는 흰 망아지는 멀리 마음을 두고 있는가라고 탓하고 있다. 퇴계는 언지 5에서 갈매기와 가까이 지내는 백구맹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라에 대한 걱정과 임금님을 잊지못하고 있으며, 忘世를 경계하고 있다. 忘世는 機心을 잊는 정도에 그쳐야지 그 이상의 것, 즉 이별의 육가처럼 玩世不恭의 뜻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 佳興이 사슴과 호가지라
 호들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야 어늬 그지 이슬고

언지 6에서 퇴계는 질서정연하게 반복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면서 느끼는 감동을 노래하였다. 초장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오면 꽃이 산에 가득 피고, 가을 달밤에는 달빛이 누대에 가득 비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퇴계는 사계절 가운데 인간이 지내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봄과 가을을 예로 들었고, 또 만물을 소생시키고 생기를 불어 넣는 봄바람과 가을 달빛을 거론하면서 사시의 아름다운 흥취가 사람과 한 가지라 하였다. 여기서 사시의 가흥과 사람을 거론하여 한 가지라 한 것은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도 자연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조화롭게 살아가야함을 강조하였다. 즉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한 느낌을 四時佳興이 사람과 한 가지라 하였다. 거기다가 종장에서는 성리학적 이치가 잘 구현되어 있는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야 어찌 끝이 있겠는가 라 하였다. “魚躍”과 “鳶飛”는 천지 자연의 이치가 상하에 뚜렷이 드러나는 것을 표현한 말로, 물고기가 뛰놀고 소리가 나는 모습은 제각기 다른 사물의 모습이나 그 이치는 한 가지이다.” 魚躍鳶飛”는 中庸 費隱章에 나오는 표현으로 군자의 도에 관한 언급에서 나온다. 즉, □시경에 솔개는 하늘로 날아 오르고 고기는 연못에서 뛰어 오른다□고 한 것은 이러한 도가 천지의 위 아래로 환히 드러나 운용됨을 말하는 것이다. 군자의 도는 부부에게서 발단하고,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천지에 환히 드러난다.□고 하였다. 퇴계는 언지 마지막 작품에서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취를 그려내면서, 군자의 도가 천지에 환히 드러난” 魚躍鳶飛”, “雲影天光”의 반복 순환하는 이치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익혀 부르게 하고 안식에 기대어 듣게 하고,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게 하여 자연현상 속에서 天道를 깨달아 알게 하고 더러운 마음을 씻고 감발용통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에서 “言志”에 표현된 주리론적 세계관을 살펴보았다. 퇴계는

주렴계의 재도적 문학관을 이어받아, 시는 德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도연명의 “冲澹閑雅(충담한아)” 한 시를 이상적으로 여겼다. 퇴계는 자신의 한시를 “枯淡”하다고 하였는데, <도산십이곡>도 “枯淡(고담)” 한 풍격의 시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되씹어 볼수록 속이 기쁘지고, 담담한 듯 하나 실은 아름다운 시조라 할 수 있다. <도산십이곡>에서 추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덕행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言志 육곡에서는 군자의 도가 천지에 환히 드러난 이치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언지 1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시적 자아의 뜻을 뚜렷이 밝혔고, 언지 2에서는 태평성대에 허물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드러내었다. 언지 3에서는 허다 英才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사회에 천명하였고, 언지 4에서는 아름다운 도산 주변의 경관 속에 살면서도 彼美一人을 잊지 못하는 戀君의 정과 忠君의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언지 5에서는 선비의 出處觀을 드러내었는데, 선비는 자연과 더불어 지내면서 忘世를 경계하고 있다. 언지 6에서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취를 그려내면서, 君子의 道가 천지에 환히 드러난 “魚躍鳶飛”, “雲影天光”의 반복 순환하는 이치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3-2-2. 言學에 표현된 修養論的 세계관

퇴계는 후육곡을 “言學”이라 하여, 학문을 하는 자세나 마음가짐, 방법 등 학문과 修養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성리학에서 이론상 공부는 下學인 일상의 灑掃應待에서 출발하여 上達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퇴계는 下學보다는 上達에 더 관심이 많았기에 남명으로부터 □손으로 물 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天理를 담론하여 사람을 속이고 이름을 도적질한다□는 비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퇴계는 <天命圖說>에서 “마음이 發함은 은미하여 털끝처럼 살피기 어렵고 위태하여 구덩이처럼 밟기 어려운 것이니 진실로 “敬”으로 한결같이 하지 않으면 또 어찌 그 기미를 바르게 하여 그 用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라 하여 “敬”을 중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敬”은 객관적 관념으로서 사물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파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主一無適”하여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그러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퇴계에게 “敬”이란 형이상으로서의 心과 형이하로서의 物을 소통시키는 매개자라 할 수 있다. 결국 “居敬”의 상태가 이루어져야 格物과 致知가 이루어질 수 있다. 퇴계는 언학에서 “敬”에 바탕을 두고 학문 연마와 심성 공부에 주력해야함을 노래하고 있다. 그럼 言學 六曲을 살펴보기로 한다.

天雲臺 도라 드러 玩樂齋 瀟灑호디

萬卷生涯로 樂事 | 無窮 호야라

이 됨에 往來風流를 닮고 흐르고

言學의 첫 수에서 퇴계는 天雲臺를 돌아 들어 玩樂齋)가 맑고 깨끗한데, 만권의 서책을 벗하며 살아가니 즐거운 일이 끝이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萬卷生涯란 표현은 퇴계의 학문에 대한 포부를 집약한 표현이며, 수많은 서책을 읽으면서 여가 시간에 도산서원 주변을 다니면서 往來風流를 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탐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퇴계의 제자인 금난수

가 쓴 기록에 의하면 도산서당에는 1천 7백여권의 책이 있었다고 하며, 퇴계는 혹 참고할 것이 있으면 제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여 찾아오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제자의 증언으로 보아 퇴계는 서가에 있는 책들을 일정하게 꽂아 두고 반복해서 독서하는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계는 言學의 첫 수에서부터 핵심적인 주제어로 萬卷生涯와 往來風流를 거론하면서, 만권의 서책을 읽는 즐거움과 천운대를 돌아들어와 완락재까지 왕래풍류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였다. 여기서 왕래풍류는 <한림별곡>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논의되었다. 즉, 研學(연학)의 여가에 도산서원 주위의 산수를 소요하는 일을 가르키는 것으로 賞自然을 뜻한다고 보기도 하였고, 자연 속에서 도학을 생각하기 위한 산책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한림별곡>의 풍류는 호탕한 기풍의 자랑스러운 외침이라면 <도산십이곡>의 풍류는 賞自然을 통한 窮理를 지향하고 있다. 퇴계는 <한림별곡>의 矜豪放蕩)한 풍류나 어부사 속에 수용된 풍류를 다르게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퇴계는 <書漁父歌後>에서 <어부가>를 젊은 시절에 듣고서 마음으로 즐겁게 여겨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였고, 농암이 정리한 어부가 계통의 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암은 고려말부터 전해오던 <원어부가>를 고쳐서 <어부장가>로 개작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원어부가>에 나오는 중첩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자신의 미의식에 어울리는 한시들을 集句하여 <어부장가>로 개작하였다. 퇴계는 농암이 정리한 <어부장가>를 보고 <어부가>의 풍류를 세속 사람들의 풍류와는 다른 자연을 참으로 즐기는 노래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퇴계는 풍류의 종류를 적어도 네 가지 정도로 층위를 두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림별곡>과 같은 공호방탕한 풍류, 그리고 <어부장가>와 같은 자연을 참으로 즐기는 풍류, <이별육가>와 같은 潔身傲世의 풍류, 그리고 <도산십이곡>에 나오는 賞自然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규명하는 풍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여기서 賞自然은 <도산잡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을 매개로 하여 즐거움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道義를 기뻐하고 心性을 길러서 즐기는 삶을 의미한다. 이처럼 퇴계가 권유하는 학문과 수양의 방법은 만권생애를 통해 성인의 학문을 익히는 것과 왕래풍류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억지로 조장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雷霆이 破山하야도 聾者는 못듣느니

白日이 中天하야도 瞶者는 못보느니

우리는 耳目 總明 男子로 聾瞶 근지 마로리

언학 2에서 퇴계는耳目이 총명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귀머거리와 소경을 극단적인 예로 들어서 사물의 현상에 대하여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즉 우레와 벼락이 산을 무너뜨려도 귀머거리는 못 듣고, 밝은 해가 하늘 가운데 떠 있어도 소경은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중장에서는 우리는 이목이 총명한 남자가 되어 귀머거리나 소경처럼 되지는 말아야함을 역설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학 1에서 제시한 것처럼 만권생애와 왕래풍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하고, 다음장에서 제시하는 옛 사람들의 행하던 길을 실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古人도 날 몰보고 나도 古人 몰 보
 古人를 못 봐 도 녀 던 길 알 려 있 는
 녀던 길 알 려 있 거 든 아 니 녀 고 엇 덜 고

언학 3에서 퇴계는 옛 성인들이 행했던 학문 수양의 방법을 따라서 자신도 학문과 수양에 몰두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즉, 학문과 수양의 길이 앞에 있음을 인지했으면 실천을 해야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비록 옛 성현들은 나를 보지 못했고, 나도 옛 성현들을 보지 못했지만 성현들이 실천했던 학문과 수양의 방법이 經典과 수많은 서책 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의 삶은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종장에서 “행하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행하고 어찌할꼬”라고 강조하였다. 언학 3에 나오는 “나”는 물론 퇴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居敬”과 “窮理”로 학문과 수양에 힘쓰는 모든 사람으로까지 확대시킬 수가 있다. 즉 옛 성현들이 행하던 길이 앞에 있으니 나 자신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따라 행하여야 하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현들이 행하던 방법대로 학문과 수양에 힘써야함을 노래하였다.

當時에 녀 든 길 흔 면 히 를 버 려 두 고
 어디 가 돌 니 다 가 이 제 야 도 라 온 고
 이제나 도 라 오 느 니 년 덕 맛 술 마 로 리

언학 4에서 퇴계는 학문 수양의 길에 몰두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었다. 이 작품은 “敬”의 기본개념으로써 “主一無適”을 바탕에 두고 있는 노래이다. “主一無適”은 “밖으로 업정하며 속마음이 일치된 것”이라 하는데, 이 작품에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학문과 수양에만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었다. 즉, 당시에 행하던 학문과 수양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하고 자책하고 있다. 여기서 퇴계가 “어디가 다니다가”라고 표현한 것은 학문과 수양의 길을 버려두고 벼슬길에 나갔던 일을 자책하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제야 돌아왔으니 앞으로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主一無適) 오직 학문과 수양에만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언학 4에서는 당시에 행하던 길은 중단해서는 안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야 할 과제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언학 5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靑山은 엇 데 흐 야 萬 古 애 프 르 르 며
 流水난 엇 데 흐 야 晝 夜 (주야) 애 긋 지 아 니 는 고
 우리도 그 치 디 마 라 萬 古 常 靑 호 리 라

언학 5에서 퇴계는 청산과 유수처럼 우리도 학문과 수양의 길을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 퇴계는 靑山의 푸르름과 流水의 영속성을 체득하면서 우리도 靑山과 流水의 이치를 본받아서 그치지 않고 변함없이 학문과 수양에 정진해야함을 읊조리고 있다.

퇴계는 □敬으로써 格物하면 만물이 나의 살펴봄을 벗어날 수 없고, 敬으로써 사물에 대응하면 사물이 마음에 누를 끼칠 수 없다□고 하였는데, “敬”이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그러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문과 수양은 “居敬”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성취할 수가 있는데, 靑山의 푸르름과 流水의 밤낮으로 흐르는 영속성을 노래하면서, 학문과 수양도 靑山과 流水처럼 그치지 말고 萬古常靑해야함을 역설하였다. 언학 5에서 노래하는 이러한 학문과 수양의 영속성은 언학 6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愚夫도 알며 혹거니 그 아니 쉬운가

聖人도 몰 다 혹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니 어렵거나 등에 늡 늡 주를 몰래라

言學 6에서 퇴계는 심성공부를 하다 보면 늡늡이 찾아오는 줄도 모른다고 하였다. 학문은 어리석은 사람도 알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성인도 못 다 하시는 것이니, 우부나 성인할 것 없이 끝없이 반복 실천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잊은 채 학문에 심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장은 中庸 費隱章에 나오는 내용을 압축하여 시조로 읊어준용 비은장에서, □군자의 도는 그 用이 넓으면서도 體가 은미하다고 하였다.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참여하여 알 수 있으되 그 지극함에 이르러는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알지 못하는 바가 있으며, 부부의 불초함으로도 능히 행할 수 있으되 그 지극함에 이르러는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능하지 못한 바가 있으며, 천지의 큼으로도 사람이 오히려 恨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큰 것을 말할진댄 천하가 능히 신지 못하며, 작은 것을 말할진댄 천하가 능히 깨뜨리지 못한다. 시경에 이르기를,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노네.□하였으니 상하에 이치가 밝게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군자의 도는 단서가 부부에게서 시작되니, 그 지극함에 미쳐서는 천지에 밝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군자의 도는 가까이서 부부가 집에 거처하는 사이로부터 멀리는 성인과 천지도 다할 수 없는데, 그 이치는 은미하여 잘 드러나지 않고,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성인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인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공자께서 禮를 묻고, 官制를 묻는 것과 같은 종류요, 잘하지 못하는 것은 공자께서 지위를 얻지 못함과 요순이 널리 베푸는 것을 부족하게 여김과 같은 종류라 하였다.

언학 6은 이처럼 『중용』 비은장의 내용을 시조로 읊었는데, 이 내용은 언지 6에서 표현한 내용과 서로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언학 6의 초장과 중장의 내용은 『중용』 비은장의 내용과 일치한다. 즉 『중용』 비은장에서 군자의 도를 설명하면서 부부의 어리석음과 성인의 지혜를 대비시키면서 군자의 도를 실천하는 데는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알 수 있고, 성인도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못다 하게 되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군자의 도가 지극함에 미쳐서는 천지에 밝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이 “魚躍”과 “鳶飛”인데, 이러한 경지를 퇴계는 언지 6에서 이미 노래하였다. 여기에서 “言志”와 “言學”이 모두 그 인식론적 기반을 『중용』의 비은장에 두고 있다는 것이 바로 두 장을 하나로 아우르게 하는 통일성의 기반이기도 하다. “言志”와 “言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君子의 道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일

수 있는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言志”에서는 하늘의 도를, “言學”에서는 인간의 도를 노래하고 있다. 퇴계는 결국 <도산육곡>의 둘인 “言志”와 “言學”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과제를 하나의 주제로 엮어내고 있는 것이다. 즉 “言志”에서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鳶飛魚躍과 “雲影天光”의 이치를 체득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노래하였고, “言學”에서는 학문과 수양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군자의 도를 이루어나가도록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퇴계는 후육곡을 言學이라 하여 학문하는 자세나 마음가짐, 방법 등 학문과 수양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퇴계는 언학에서 “敬”에 바탕을 두고 학문연마와 심성공부에 주력해야함을 노래하였다. 언학 1에서 퇴계가 권유하는 학문과 수양의 방법은 만권생애를 통해 학문을 익히는 것과 왕래풍류를 통해 미음을 비우고 억지로 조장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언학 2에서는 이목이 총명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장에서 제시하는 옛 사람들이 행하던 길을 실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언학 3에서는 옛 성인들이 행하던 학문 수양의 방법을 따라서 자신도 학문과 수양에 힘써야겠다고 다짐하였고, 여기에 나오는 “나”는 물론 퇴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학문과 수양에 힘쓰는 모든 사람으로까지 확대시킬 수가 있다. 언학 4에서는 당시에 행하던 길은 중단해서는 안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야할 과제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언학 5에서 더욱 구체화 된다. 언학 5에서 퇴계는 청산과 유수처럼 우리도 학문과 수양의 길을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학문과 수양의 영속성은 언학 6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언학 6은 『중용』의 비은장의 내용을 읊었는데, 이 내용은 언지 6에서 표현한 내용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즉, 『중용』의 비은장에서 군자의 도를 실천하는 데는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할 수 있고, 성인도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못다 하게 되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군자의 도가 지극함에 미쳐서는 천지에 밝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이 “魚躍”과 “鳶飛”인데, 퇴계는 언지 6에서 이미 노래하였다. 이러한 면이 바로 <도산육곡>의 둘인 “言志”와 “言學” 두 장을 하나로 아우르게 하는 통일성을 지니게 하고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도산십이곡>은 “言志 六曲”과 “言學 六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논문을 통하여 두 六曲이 작품의 구조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퇴계의 이기철학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지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도산잡영>과 <도산십이곡>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도산잡영>과 <도산십이곡>은 한결같이 태극 염계의 묘리를 터득하기 위해 고심했던 도학자 퇴계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로, 서로 관련이 깊은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퇴계는 도산에서의 흥을 <도산잡영>이라는 한시로 먼저 창작하고, 한시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우리말 노래로 표현한 것이 <도산십이곡>이라 할 수 있다.

퇴계는 <도산십이곡> 발문에서 이별의 <육가>를 대략 모방하여 <도산육곡>을 지은 것이 둘인데, 그 하나가 “言志”요, 둘이 “言學”이라고 말

하였다. 퇴계는 작품의 이름을 <도산육곡>이라 하여 육가계 노래임을 뚜렷하게 밝혀 놓았다. “言志”와 “言學”은 다같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진 하나의 구조물임을 작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言志”와 “言學”의 통일성은 마지막 연이 공통적으로 <중용> 비은장의 君子之道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은 “君자의道”를 노래한다는 면에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言志”六曲에서는 主理論의 세계관을 살펴보았다. 퇴계는 주렴계의 재도적 문학관을 이어받아, 시는 德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도연명의 “冲澹閑雅”한 시를 이상적으로 여겼다. 따라서 퇴계가 <도산십이곡>에서 추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덕행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言志 육곡에서는 군자의 도가 천지에 환히 드러난 이치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언지 1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시적 자아의 뜻을 뚜렷이 밝혔고, 언지 2에서는 태평성대에 허물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드러내었다. 언지 3에서는 허다 英才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사회에 천명하였고, 언지 4에서는 아름다운 도산 주변의 경관 속에 살면서도 彼美一人을 잊지 못하고 戀君의 정과 忠君의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언지 5에서는 선비의 出處觀을 드러내었는데, 선비는 자연과 더불어 지내면서도 忘世를 경계하고 있다. 언지 6에서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취를 그려내면서, 君자의道가 천지에 환히 드러난 “魚躍鳶飛”, “雲影天光”의 반복 순환하는 이치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퇴계는 후육곡을 言學이라 하여 학문하는 자세나 마음가짐, 방법 등 학문과 수양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퇴계는 언학에서 “敬”에 바탕을 두고 학문연마와 심성공부에 주력해야함을 노래하였다. 언학 1에서 퇴계가 권유하는 학문과 수양의 방법은 萬卷生涯를 통해 학문을 익히는 것과 往來風流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억지로 조장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언학 2에서는 이목이 총명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옛 사람들이 행하던 길을 실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언학 3에서는 옛 성인들이 행하던 학문 수양의 방법을 따라서 자신도 학문과 수양에 힘써야겠다고 다짐하였는데, 여기서 “나”는 물론 퇴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학문과 수양에 힘쓰는 모든 사람으로까지 확대시킬 수가 있다. 언학 4에서는 당시에 행하던 길은 중단해서는 안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야 할 과제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언학 5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언학 5에서 퇴계는 청산과 우수처럼 우리도 학문과 수양의 길을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학문과 수양의 영속성은 언학 6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언학 6은 『중용』의 비은장의 내용을 읊었는데, 이 내용은 언지 6에서 표현한 내용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중용』의 비은장에서 군자의 도를 실천하는 데는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할 수 있고, 성인도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못다 하게 되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군자의 도가 지극함에 미쳐서는 천지에 밝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이 “魚躍”과 “鳶飛”인데, 퇴계는 언지 6에서 이미 노래하였다. 이러한 면이 바로 “言志”와 “言學” 두 六曲을 하나로 아우르게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산십이곡>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도학적 함의를 지닌 질박하고 육중한 사상의 무게가 느껴지는 시조가 아니라, 되씹어 볼수록 속이 기름지고, 담담한 듯하나 실은 아름다운 “枯淡(고담)” 한 풍격의 시조라 할 수 있고, “言志” 六曲과 “言學” 六曲이, 하나의 주제인 “군자의 도” 를 꿈꾸고 있는 노래라 할 수 있다.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Dosan Sibigok (陶山十二曲)

Byun, Jong Hyun

Dosan Sibigok consists of 'Eonji Yukok(言志 六曲)' and 'Eonhak Yukok'(言學 六曲). This thesis focuses on how the structures of two Yukoks(六曲) are intimately connected to one another and how Toegye's Yigicheolhak(a kind of philosophy) is reflected in his works. First of all, let's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osanjapyeong' and 'Dosan Sibigok'. Two works show a world view of Toegye, an ethicist who had tried to understand an abstruse principle of Taegukeyeomgye. They are connected deeply to each other. At first, Toegye created a chinese poem, 'Dosanjapyeong' to express his joy in Dosan and then he wrote 'Dosan Sibigok', which was written in Korean, to depict his emotion which he couldn't express with chinese letters.

In the epilogue of 'Dosan Sibigok', he wrote that he had composed two 'Dosan Yukoks' by imitating Yukga of farewell. One was 'Eonji Yukok' and another was 'Eonhak Yukok'. He also wrote that his work called 'Dosan Yukok' was a style of Yukga. In this respect, 'Eonji(言志)' and 'Eonhak(言學)'. are well organized each other. Especiall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eir last stanza. Both of them are related to Gunjajido(君子之道, a way of man of virtue) of Bieunjang(費隱章) in the doctrine of the mean <中庸>. They sing 'a way of nature' and 'a way of human being' in common.

'Eonji Yukok' shows the world view of Juriron(主理論) (a theory of Neo-confucianism). Toegye inherited Juryeomgye's point of view in literature, which had a moral value. His poems were based on virtue and his ideal poem was Doyeonmyoung's Chungdamhana(冲澹閑雅). In 'Eonji Yukok', he desired people to realize and pursue a way of man of virtue. That is, 'Eonji 1' shows a poetic self to try to be in harmony with nature and 'Eonji 2' reveals that he wanted to live in an age of peace. 'Eonji 3' presents his enthusiastic will to train a lot of talented people. 'Eonji 4' reveals that he would long for the king and he would be loyal to him, not forgetting pimiirin (彼美一人, a king) even though he was living in a beautiful scenery of Dosan. 'Eonji 5' shows his thought of being in government service(出處觀) so that he tried not to forget the world even though he lived in nature. In 'Eonji 6', the poet desired people to realize a reason why Eoyakyeonbi (魚躍鳶飛, a very active state) and Unyoungcheongwang(雲影天光, a harmonious state) were repeated and rotated, depicting the beauty of four seasons.

Toegye wrote about an attitude, a mind and a way for study in the later Yukgok, calling 'Eonhak'. In 'Eonhak', he insisted on keeping studying and cultivating mind, based on 'gyoung'(敬, respect). In 'Eonhak 1', he recommended people to read a lot of books for study (萬卷生涯), and to rid themselves of greed and to appreciate the arts (往來風流) for self-discipline. In 'Eonhak 2', he recommended that to be wise men they should practice a way in which ancient people had done. In 'Eonhak 3', he resolved that he would devote himself to his studies and self-discipline as ancient saints had done. In 'Eonhak 4', he wrote that people should not stop a way in which they had performed and they should keep practicing it without being distracted. In 'Eonhak 5', Toegye decided that people should keep studying and maintain self-discipline like everlasting nature. 'Eonhak 6' also emphasizes on ceaseless study

and self-discipline. Bieunjang(費隱章) in the doctrine of the mean <中庸> is recited in 'Eonhak 6', which is related closely to the contents expressed 'Eonji 6'. As mentioned above, 'Eonji' and 'Eonhak' harmonizes with each other and has unity in various aspects.